

일본 특파원이 바라본 한강오염

지난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되는등 큰 피해를 일으킨 한강, 서울시내를 관류하는 큰강으로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이다. 이러한 한강이 가정, 공장, 축산폐수의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미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

88년 서울올림픽 무대인 잠실 메인스타디움 부근, 바로 옆에 도시하천인 탄천이 한강 본류로 유입되고 있다. 합성세제 거품이 넘쳐흐르고 악취도 심하게 나고 있다. 역시 서울 북부에서 남하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중랑천에 도달해서는 진한 흑색을 띤다.

한강 정비계획으로 부근에 설치된 윈드서핑장도「5분정도 물에 들어가면 몸이 가렵게 된다」고 말할 정도이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낚은 고기도 매우 적었다. 오염 주범은 대소34지류에서 흘러들어오는 수백만톤/일의 폐·하수이다. 탄천의 경우, 하수처리를 하여 한강본류로 유입시키지만 그렇더라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는 36ppm(기준치 10ppm)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1,000만명의 급수원수로서 500만톤 중 65%를 이 한강에서 취수하고 나머지는 상류 팔당호에서 송수하고 있다. 팔당호 물도 이미 상수원수 1급수(BOD 1.0ppm)를 초과하고 있다. 매년 0.1~0.2ppm씩 오염도가 상승하여 2급수로 전락하였다.

이것은 호수 주변에 점차 리조트가 건설되거나 골프장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수도수의 수질을 신뢰하고 있는 시민은 6.7%에 불과하고, 30% 이상의 시민이 음료수로 미네랄워터를 사먹고 있다는 결과로 나와있다. (9월20일 중앙일보)

오염의 원인은 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공업발전으로 공장폐수와 서울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생활하수의 급증이다. 전국 공장단지 67개중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것은 23개소에 불과하고, 또한 오수처리 시설을 가진 기업은 2만5천사를 넘고 있지만 20%정도는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생활하수에는 합성세제의 영향이 심각하였다. 83년의 조사에서는 세계소비량은 연간8만3천톤이었지만 87년에는 18만톤으로 격증하고 있다. YWCA 조사에서는 60%이상의 사람들이 적정량의 4.5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골프장도 좋지 않은 영향이다. 환경처가 수도권 23개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고 있으며 잔디보호용 농약을 함유한 오염수도 방류되고있다.

5공화국 당시 이러한 한강을 살리기위해 의욕적으로 「분류하수관로」라는 배수시설을 54km에 걸쳐 매설하여 수질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급팽창이 정화 노력을 상회하였다.

한강정비사업에서 고수부지를 잔디밭과 수영장, 유람선 선착장 등을 많이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폐수 발생을 유발하여 오염을 증가시킨 원인이 되었다. 정부도 마스크의 비판을 받아 한강유역 17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한과 수원지부근의 골프장 개발을 중지하거나 농약, 비료 사용방법을 규제하는등 시기를 놓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것 같다.*